

〈洪武二十一年戊辰四月〉銘 가구의 양식과 명문 연구

김삼대자*

- I. 머리말
- II. '기록과 유물로 본 고려 이전의 목물
- III.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명 가구의 양식
- IV. 척도와 조형기법
- V. 명문의 서체
- VI.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명 가구의 명칭
- VII. 맺는말

I. 머리말

고려시대의 목재가구로서 현존하는 유물은 없다고 알려져 왔는데 십 여년 전 한 학부모의 제보로 내면에 〈홍무이십일년 무진 사월일 조 홍산지말수산무량사〉(洪武二十一年戊辰四月日造鴻山地萬壽山無量寺)라는 조성기가 있는 소나무제 가구를 보았다(도 1). 홍무 21년은 고려시대인 1388년을 가르키며 가구의 다리 밑 부분은 부식되어 단절되었으나 양식이 고려 건축의 양식과 유사하여 한눈에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였다.

『고려사』나 『고려도경』의 단편적인 기록들과 나전경함의 유물을 통해서도 고려시대에 우

* 전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과장·홍익대학교 초빙교수, 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도 1 <홍무이십일년 무진사월 일조 홍산지만수산무량사> 명 가구,
천판 전체길이 133.5cm 천판 너비 47.4cm 높이 94.1cm(실측도면 참조)

수한 가구들이 제작,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조선 전기 이전의 가구에 대한 학계의 공인된 유물이나 자료가 없어 <홍무이십일년 무진사월> 명 가구는 아직까지 학계에 공식 보고되지 못하였고 또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가구는 목수가 만드는데 목수에는 대목(大木)과 소목(小木)이 있다. 중국 송나라의 이계(李誠:明仲)가 1103년에 편찬한 『영조법식』에 대목과 소목의 분류에 대한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 소목장이라는 명칭이 『고려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영조법식』의 분류에 따라 대목장과 소목장의 분류가 이루어 졌다고 보여 진다. 건물을 지을 때 대목과 소목은 공동 작업을 하므로 목공 기법은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이에 고려시대의 건축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 및 그 내부에 설치된 단집, 부석사 무량수전의 후문과 한반도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알려진 일본 쇼쇼인(正倉院)소장의 <적칠문관목주자(赤漆文觀木厨子)>, 최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굴한 삼천사지(三川寺址) 출토의 가구 편(片)² 등과

¹ 『營造法式』은 8책 34권으로 제 4권과 제 5권에 대목작 제도에 관해 기록하였고 제 6권에서 제 11권까지 소목작 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 17권과 18, 19권은 궁궐, 사찰, 주택 등 건축물의 가구(架構)를 짜는 대목의 작업범위를 도면 작업으로 제시하였고, 20권에서 23권까지는 건물의 구조물이 아닌 창호, 대문, 조정(藻井), 벽장 등 소목의 작업범위를 도면으로 제시하였다.

² 삼천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에 위치한 사찰로서 임진왜란 이후 폐허화되어 사찰터만 남아 있던 곳으로 2005년 9월 12일부터 2007년 12월 1일 사이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굴하였다. 이곳 A지구 8개의 층 중 4~8 층에서 '嘉順宮主王氏 我嘉耦 新安公 ○○歲時○○'이라는 명문이 있는 <가순궁주명금니목가구편>을 위시한 금동투각 목가구 부재, 철제돌찌귀, 경첩, 고리, 못 등이 발굴되었다. 가순궁주는 고려 21대 희종의 4녀로 신안공 왕전(?~1261)과 혼인하였다.

〈홍무이십일년 무진사월〉 명 가구의 양식비교를 통해 그 진위를 밝혀 보았다.

또 이 가구의 제작연대를 알기 위해 실측을 하여 각 부분을 역대척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용 척도를 도출하였고, 실측치를 통해 건축의 요소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명문 29자의 서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체의 연대에 대한 진위여부도 병행하였다.

Ⅱ. 기록과 유물로 본 고려 이전의 목물

1988년에 발굴 조사된 경남 의창군 다호리 유적(기원 전 1~2세기)에서 통나무 목관과 대소쿠리, 소형 목(木) 상자가 발굴되어 2000여 년 전의 가구 양식을 살필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탈해왕의 탄생설화에 나오는 길이 20척·너비 13척의 궤(櫃), 김알지의 황금궤(黃金櫃), 사금갑(射琴匣)조의 거문고집, 경덕왕·충담사(忠談師)·표훈대덕(表訓大德)조에서의 빛나무 통에서 볼 수 있듯이 궤와 통 등의 가구 명칭이 있어 그 역사가 오래 되었음을 알게 한다.

고구려의 쌍영총·무용총·사신총·각저총 등의 고분벽화에는 평상·의자·탁자 등의 그림이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족좌(足座)와 왕비의 두침(頭枕)에서는 사실적인 구갑문과, 목관에 부착된 금동장식을 통해 조선시대까지 장식한 구갑문과 목가구나 대문에 장식한 국화동(菊花童)의 시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 목제 가구에 관한 명칭은 『삼국유사』 권 3 전후소장사리(前後所藏舍利)에 침향함(沈香函)과 나전함, 『고려도경』 제 28권에 좌탁(坐榻:의자)·연대(燕臺:탁자)·단칠조(丹漆俎:붉은 칠 소반)·흑칠조(黑漆俎:검은 칠 소반)·와탁(臥榻:침대), 제 33권 궤식(饋食)에 반(盤)·독(櫛)이 있으며, 특히 연대는 네 모서리에 예각을 없애고 백색의 등녕쿨이 꽃을 뚫고 나왔으며 금칠한 장식 못이 붙어 있다고 묘사하였다.

『청장관전서』·『고려사』·『고려도경』에 나전경함과 나전연갑·나전필갑의 기록이 있으며 『고려사』 권 27 원종 13(1272)년 3월 갑진(甲辰)일에 설치한 전함조성도감(鈿函造成都監)의 존재는 고려 때 나전칠기의 성행을 말해 준다.

『고려사』 제 59권 및 60권의 길례대사(吉禮大祀: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에 관한 예식)와 제 65권 빈례(賓禮: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의식) 및 제 66·67권 가례(嘉禮:결혼 책봉 등의 경사스러운 의식)에는 향안(香案)·책함(冊函)·과안(果案)·화안(花案) 등 탁자류의 명칭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소함(詔函)·책함(冊函)·표함(表函:군주에게 올리는 서장)과 함께 사상(纒

箱:치포관을 담은 상자)·즐상(櫛箱:빗을 담은 상자)·관상(冠箱:머리쓰개를 담은 상자) 등 합과 상자류가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세가 제 19 의종3 경인 24년(1170) 4월 을사(乙巳)일에 ‘진관사(眞觀寺) 남쪽에 노인당(老人堂)을 세우게 하고 별기은소(別祈恩所)를 세워 금은화(金銀花)와 금옥기명(金玉器皿)을 제조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사』 권 제7 세가7 문종1 즉위년 12월 기해(己亥)일에 ‘돌아가신 임금이 사용하던 용상(龍床)과 답두(踏斗)는 금으로 장식하고, 『고려사』 권 제 85 지제 39 고종 33년(1246) 11월 ‘관곽에 금박으로 치레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기록도 있어 왕실에서의 목물 치장이 화려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고려사』 권 제 129 열전 제 42 반역 3, 고종 16년에 ‘최이가 자기 집에서 어연을 만들어 임금에게 바쳤는데, 그 연은 금, 은, 비단, 수단으로 장식하여 극히 사치하여 임금이 감탄하여 마지않았으며 ...’, 라고 했으며, ‘고종 18년 최이의 처 정씨가 죽자 감실에까지 금과 비단으로 장식하였고 다음해(고종 19년) 왕후가 죽어서 최이가 관곽을 바쳤는데 모두 금과 은으로 장식하여 왕이 보고 감탄하였다’고 하였다. 또 ‘고종 36년 최항이 조계순의 딸을 재취했는데, 왕은 황금경대와 화장용구를 주었으며, 고종 41년 최항은 자기 집에 고관대작을 초대했는데, 마별초 중에는 금으로 안장의 아래 끝을 장식하고 금엽으로 만든 꽃을 말머리와 꼬리에 꽂은 자도 있었다’³ 는 기록 등에서 고려시대의 화려한 공예품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Ⅲ. 〈홍무이십일년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양식

가구가 제작된 홍무 무진년은 1388년(우왕 14)으로 고려가 멸망하기 4년 전이었다. 당시는 왕과 많은 신하들이 모두 황음무도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였고 재정의 고갈로 재상들의 녹(祿) 지불을 중지하기도 하였으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에 돌아와 6월에 우왕을 강화로 귀양 보내고 창왕을 세운 혼란한 시기였다. 따라서 당시에 제작한 가구는 금·은 등의 값비싼 재료나 화려한 조각 등을 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명문에 보이는 무량사(無量寺)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外山面) 만수산(萬壽山)에 위치한 고찰로서 현재 불교 조계종 마곡사의 말사이다. 무량사는 원래 홍산현(鴻山縣)에 속하였으

3 북한국역 『고려사』(신서원, 1991), p.391~406

나 1914년 군폐합(郡廢合)에 따라 부여군에 속하면서 외산면으로 바뀌었다. 2000년 12월에 발행한 『한국의 고건축 22호』의 무량사 극락전(보물 제 356호) 및 일괄 기록에, '무량사의 연혁을 살필 수 있는 사적은 남아 있지 않으며 창건에 대한 자료로 5종이 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달라 신뢰할 수 없고 현존 석조물인 당간지주, 석등, 오층석탑, 극락전 기단 주변의 대좌석 등이 모두 고려 초기의 것으로 보인다.'⁴고 하여 고려 초기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모두 소나무로 제작되었다.

소나무의 특징은 가볍고 연하며 심변재의 구분이 뚜렷하다.

『고려사』 고려 왕실의 세계(世系)에 소나무와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에 관한 설화가 있다. 그 내용은 '신라 감간(監干) 팔원(八元)이라는 사람이 풍수에 관한 방술을 잘 알고 있었는데, 부소군에 왔다가 부소산의 형세는 좋으나 산에 나무가 없는 것을 보고 솔(소나무)을 심어 암석이 나타나지 않게 한다면 거기서 삼한(三韓)을 통일하는 자가 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다.⁵ 이후 고려에서는 소나무를 중히 여기었고, 공민왕 정유(丁酉) 6년 윤 9월 무신(戊申)일에 사천소감 우필흥(于必興)이 『옥룡기(玉龍記)』⁶를 인용하여 '모든 산에 소나무를 뺏뺏하게 심어 무성하게 키워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으며 왕은 이 건의를 수용하였다'⁷고 하였다. 따라서 고려 초부터 소나무의 인위적인 식재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임원경제지』 섬용지(贍用志) 권 2 영조지구(營造之具) 목료(木料)에 가옥의 재료는 소나무가 최상이라 하였다. 소나무는 가옥뿐 아니라 가구재로서도 애용되었다.

그러나 가구재로서 최상품은 예나 지금이나 느티나무로서 과거의 기록이나 유물로서 확인된다. 『삼국사기』 권 제 33 잡지 제2 기물에 6두품 이하의 남성과 4두품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안장길마에 괴목(槐木:느티나무)을 금하였다. 일본 쇼쇼인(正倉院) 소장의〈적철문관목주자〉와 최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발굴한 삼천사지 출토의 가구 편은 모두 느티나무이다. 홍무 21년은 고려 말기로서 혼란한 시기였으며 더우기 무량사는 지방의 사찰이었으므로, 가구를

⁴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22호』- 무량사 극락전, (2000), p.8~10

⁵ 북한국역 『고려사』 第一冊, (신서원, 1991), p.44

⁶ 『옥룡기』는 도선(道詵)이 지은 비기(秘記)이나 전해 오지는 않고 있다.

⁷ 우필흥, 앞의 책 제 4책,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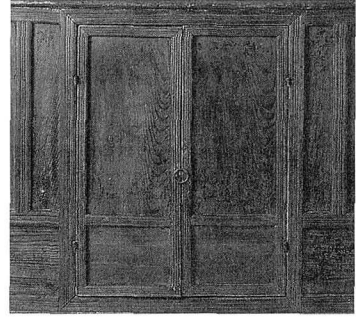
느티나무로 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중 문얼굴과 좌우 비대칭 널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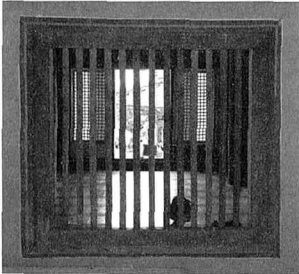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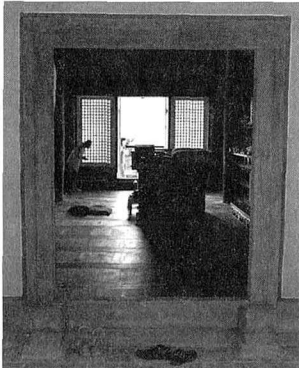
중앙의 문(開口部)이 좌우비대칭의 통판이며 이중의 문얼굴을 하였다. 개구뿐 아니라 머름간, 쥐벽간 등도 통판으로 문얼굴을 하였다. 이러한 문얼굴을 한 이중 틀의 알갱이는 전면뿐 아니라 측면과 후면에서도 볼 수 있다(도 2).

이중의 문얼굴은 고려시대의 건물인 부석사 무량수전의 뒷문과 창호 및 안동 봉정사 극락전의 창호에서 볼 수 있다(도 3, 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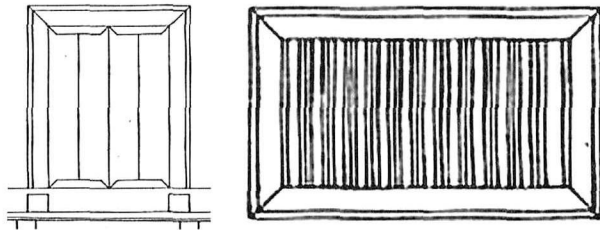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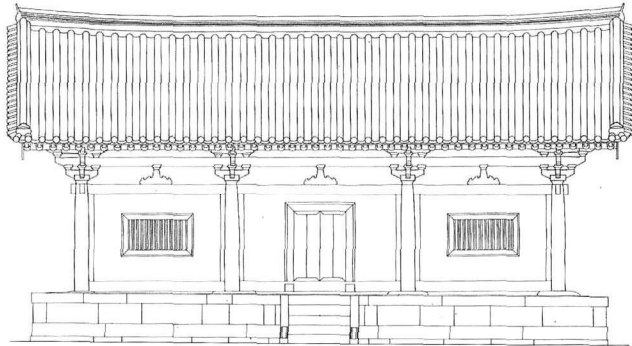
조선 초기의 목가구로서 리움박물관 소장의 책장(재료: 느티나무, 크기: 144.5×45.6cm, 높이: 163.2cm)은 손소(孫昭, 1433~1484)가 세조때 이시에 반란을 평정한



도 2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가구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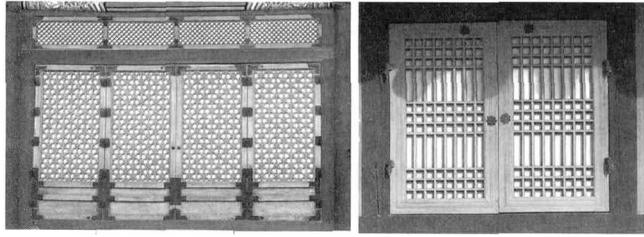
도 3 <부석사무량수전> 뒷문과 창문



도 4 <안동 봉정사극락전> 전면과 세부(문, 창문) 실측도 『봉정사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p.64 발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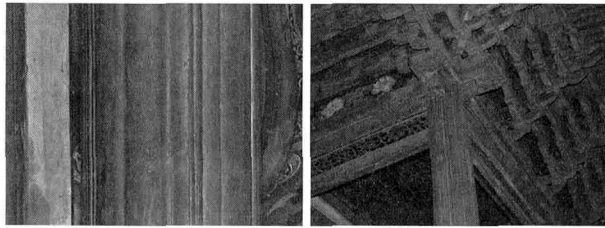
도 5 <손소(1433~1484) 책장>, 가로144.5cm 세로45.6cm 높이163.2cm, 리움 소장



도 6 조선 후기 경복궁 근정전 문과 자경전 창문



도 7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 앞면의 기둥과 식목



도 8, 8-1 <안동 봉정사극락전> 단집기둥

공으로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 책장은 알갱이가 통판이며 전면의 좌우 쥐벽간과 측널의 알갱이들에 테(얼굴)를 둘러 고려양식의 여운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도 5, 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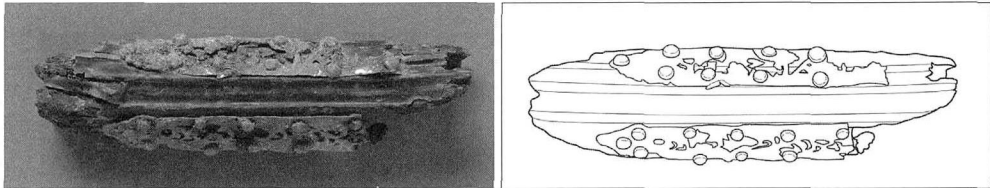
통판 나무의 심재는 변재보다 단단하여 변재 쪽으로 휘는 성격이 있다. 판재의 휨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를 제작할 때에는 바람을 덜 받도록 변재 쪽을 안으로 하고 심재면을 밖으로 하는데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잘 이용하여 좌우 비대칭의 목리를 보인다. 리움의 책장은 좌우 대칭의 목리를 보이고 있다. 조선 초기에 경공장이 제작한 이 책장은 뛰어난 치목 기술로 통판으로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목리를 이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조선 시대 후기 목가구는 좌우 문판이나 쥐벽간 등을 싹질하여 대칭되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3. 쌍사면과 쌍사모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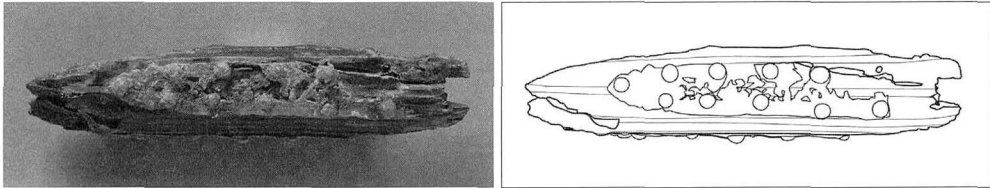
부출의 외면 네 모서리 및 개구부의 문얼굴 바깥 모서리를 제외한 모든 기둥 모서리와 기

등면에 쌍사로 모끼(목귀, 목계)를 쳤다(도 7). 쌍사면에 쌍사모를 한 기둥은 전면 뿐 아니라 측널과 뒷널의 기둥과 쇠목에도 설치하여, 부드럽고도 당당한 강유(剛柔)의미를 보인다. 조선시대의 가구에는 뒷널에 수장(修粧)을 하지 않는다. 기둥모서리와 기둥면에 쌍사를 친 예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내부 단집(도 8, 8-1)에서 볼 수 있으며 삼천사지 출토의 가구 편(도 9, 9-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희한 대목장의 “수장드릴 적에는 중방, 문설주, 문꼴에 모를 깎아요. 가늘게도 깎구, 넓게두 깎구, 둥그스름하게두 깎구, 그러지, 또 모끼두 치구, 또 쌍사치기두 하구, 그건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오니까 잘하는 집은 죄 쌍사치구 모끼치구 그런다구”⁸ 하여 건물에서의 수장이 가구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도 10, 11, 12).



도 9 <삼천사지 출토 가구 편>쌍사모(016, 011-앞), 13세기



도 9-1 <삼천사지 출토 가구 편>쌍사면(016, 011-옆2), 13세기, 나무길이 11.6cm, 폭 3cm



도 10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 뒷면



도 11 <손소(1433~1484)> 책장 뒷면, 리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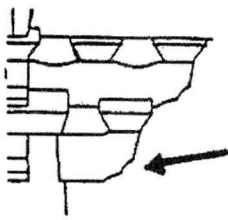


도 12 <민박(39784) 책장(17세기)> 뒷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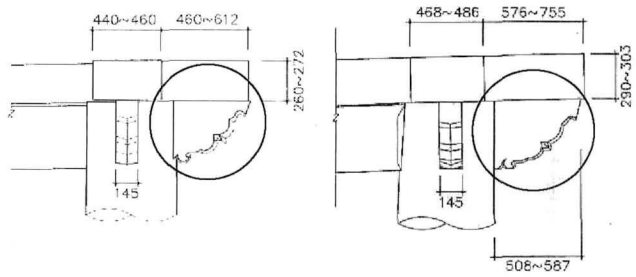
⁸ 배희한 구술, 이상룡 편집,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뿌리깊은 나무, 1981), p.109

4. 직절한 삼각 풍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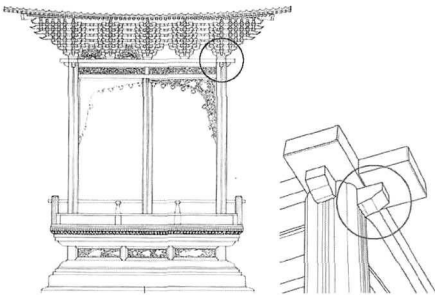
천판 및 양귀의 풍혈(까치발)은 단순한 직선의 삼각 형태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의 단집 창방 뿔목과 유사하다. 건물에서의 창방 뿔목은 삼각의 직선에서 초엽형 또는 운문형으로 변화한다(도 14). 『한국목조건축의 기법』에 ‘봉정사 극락전의 창방 뿔목(도15)은 조각 없는 뿔목으로 되어 있고 부석사 무량수전은 창방 뿔목(도 13)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건축을 보면 창방의 뿔목이 없는 건물이 옛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단계가 뿔목을 만들면서 조각 없이 직절한 것이며 그 다음 단계에 조각이 만들어 졌으리라 생각된다.’⁹고 뿔목의 변화과정을 설명하여 직절한 삼각형 까치발이 고식(古式)임을 알게 한다(도 16, 17).



도 13 <부석사 조사당 창방 뿔목>,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1993), p.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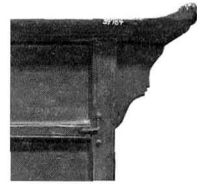
도 14 <무량사 극락전(17세기) 창방 및 평방 뿔목 실측도>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22호』- 무량사 극락전, (2000), p.66



도 15 <안동 봉정사 극락전 단집 창방 뿔목>,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1992), p.312 발췌



도 16 <홍무이십일년무진 사월> 명 가구 풍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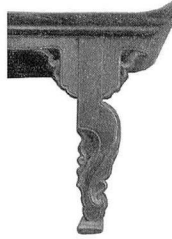


도 17 <민박(39784) 책장(17세기)> 풍혈, 111.4×51.3×109.2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⁹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1995. 6), p.169



도 18 <최문병(?~1599) 경상>
풍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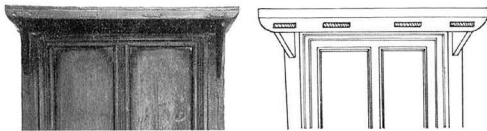
도 19 <서애 경상> 풍혈,
이만부(1664~1732)가
다리 부착

을 서애의 조카사위인 이만부(李萬敷, 1664~1732)가 다리를 부착하여 전해온 것으로 현재 보물 414호로 지정된 충효당에 보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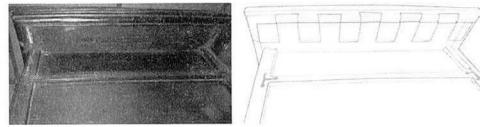
임진왜란 때에 의병장을 지낸 최문병(崔文炳, ?~1599)이 사용했던 말안장(보물 제 747)과 함께 전해 온 경상의 풍혈(도 18)은 초엽형이며, 서애 유성룡(1542~1607)의 경상(도 19)에서 투각한 풍혈을 볼 수 있다. 서애의 경상은 임진왜란(1592~1598) 때에 다리가 결실되고 상판만 남은 것

5. 천판 두루마리의 결구 및 각 기둥과 널은 내다지 장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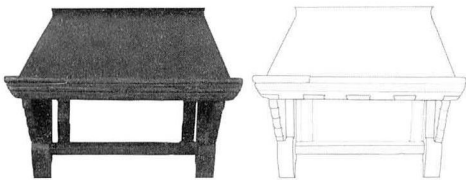
기둥과 천판, 기둥과 쇠목의 결구는 모두 내다지 장부로서 조선시대의 가구에서도 기둥과 쇠목의 내다지 장부는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이다. 그러나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 천판 두루마리는 천판에서 네 쌍의 장부축을 내고 두루마리천판에는 네 쌍의 내다지 장부구멍을 내어 끼운 네 쌍 내다지 장부짜임이다(도 20). 내다지 장부짜임은 긴 장부를 꿰뚫어 넣을 정도의 긴 장부구멍을 내어야 하므로 작업 공정이 까다로우며 그만큼 견고하다. 아직까지 조선시대의 천판 두루마리에서 내다지 장부로 짜 맞춘 것은 확인된 것이 없다. 조선시대의 두루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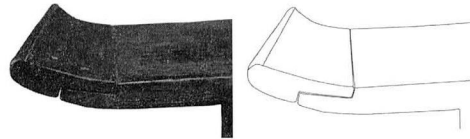
도 20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명 가구 천판 두루마리
(귀울림), 내다지 장부짜임



도 21 <민박(39784) 책장(17세기)>천판 두루마리(귀울림), 숨은 사개짜임



도 22 <최문병(?~1599) 경상>천판 두루마리(귀울림),
숨은 사개짜임



도 23 <강희21년(1682)명 지림사 경상>천판 두루마리(귀울림), 반턱짜임

천판은 대부분 숨은 사개맞춤이나 반턱짜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도 21). 참고로 임진왜란 때의 병장인 최문병의 경상(도 22)과 서애 유성룡 경상의 천판은 숨은 사개짜임이며 강희 21년 명 지림사 경상(도 23)은 반턱짜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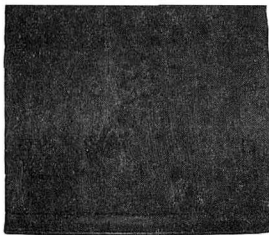
6. 천판 두루마리는 시각적으로 외반되지 않고 거의 직선(4mm 차이)을 이루었다.

천판의 두루마리 양식은 당나라 노릉가(盧稜伽)의 그림이라고 전하는 육존자상(六尊者像)에 보이는 경상의 상판 양식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와 함께 도입된 것으로 낮은 가구의 천판에 적용하여 물건이 떨어짐을 방지하였다고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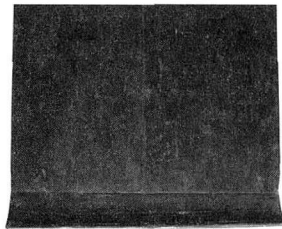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천판 폭은 47.4cm에 두루마리 끝은 47.8cm로 그 차이는 4mm이며 비율은 100 : 101이다(도 24).

국립민속박물관의 17세기 책장(유물번호 39784)은 천판 폭 49.7cm에 두루마리의 끝은 51.2cm로 그 차이는 1.5cm, 비율은 100 : 103이다(도 25). 참고로 조선 중기의 서애 경상은 천판 폭 29.2cm에 두루마리의 끝은 30cm로 천판폭 대 두루마리 폭의 비율은 100 : 103(도 26)이며 최문병 경상은 경상폭 28.7cm에 두루마리 폭 30.6cm로 100 : 107(도 27)의 비율을 보인다. 강희21(1682)년 명 지림사 경상은 33.5cm에 두루마리 양끝은 39.7cm, 비율은 100 : 119(도 28)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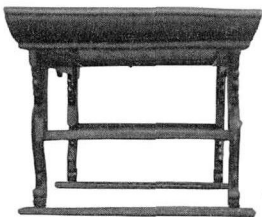
시대가 내려 올수록 두루마리의 외반 폭이 넓어짐을 알 수 있다.



도 24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 천판, 100 : 101



도 25 〈민박(39784) 책장(17세기)〉, 100 : 103



도 26 〈서애(1542~1607) 경상〉, 100 :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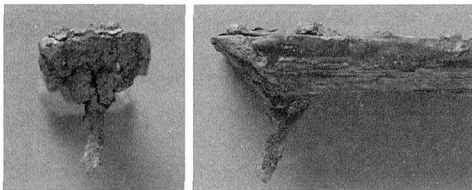
도 27 〈최문병(?~1599) 경상〉, 100 :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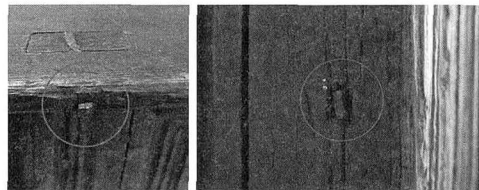
도 28 〈강희21년(1682) 명 지림사 경상〉, 100 : 119

7. 시우쇠못과 나무못의 사용

기둥과 기둥의 교차부위에 시우쇠(熟鐵)못을 사용하였고, 기둥과 널의 접합부위에는 대나무못(竹釘)을 사용하였다(도 30). 시우쇠는 들기름 또는 송진을 발라 여러 번 불에 넣었다 빼며 단조 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단련하여 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기름이 스며들어 검은 발색이 자연스러우며 녹이 나지 않고 내구력이 강하여 조선 후기까지 가옥을 위시한 가구의 장식과 자물통 등에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의 가구에서는 시우쇠못을 결구부에 박아 사용한 예를 발견할 수 없으나, 대나무못(竹釘)의 사용 예는 흔히 볼 수 있다. 시우쇠못의 사용 예는 삼천사지의 가구 편(도 29) 중 연귀맞춤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우쇠못의 사용은 쇼쇼인(正倉院)의 <적칠문관목주자>¹⁰에서도 확인된다(도 31, 31-1).



도 29 <삼천사지 출토 가구 편>에 박힌 무쇠 못(좌: 004. 057-2-세부1, 우: 004. 057-2-세부2), 13세기, 나무길이 9.4cm, 못길이 3.45cm, 동못 0.91cm



도 30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에 박힌 시우쇠못(천판과 기둥의 결구부분 / 기둥과 문얼굴과의 결구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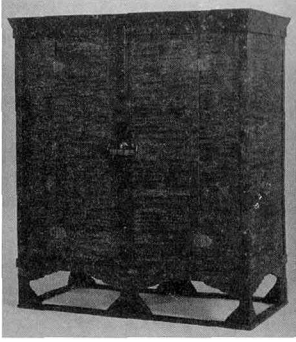
¹⁰ 2010년 7월, 국립고궁박물관 초청강연회에 「정창원 보물로 보는 한반도의 공예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한 일본 정창원의 보존과학정리실장 니시카와 아키히코(西川明彦)는 이 주자가 8세기의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09년 10월 6일 NHK·NHKプロモーション·読売新聞社·毎日経済新聞社에서 발행한 『황실의 名寶 2』- 図版 p.38 작품해설 p.174 사사다(佐々田)에 따르면 느티나무로 제작하고 주철한 전체높이 100.0cm 폭 83.7cm 안길이 40.6cm의 쇼쇼인보물(正倉院宝物)인 이 주자에 대해 아스카시대(飛鳥時代, 7세기)의 것으로 그 내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国家珍宝帳』에 기재된 궤로 천무천황(天武天皇)으로부터 지통(持統)·천무(天武)·원정(元正)·성무(聖武) 그리고 효겸천황(孝謙天皇)으로 계승되어 동대사 대불(東大寺 大佛)에 헌납되었다는 유서 깊은 물품. 성무천황(聖武天皇)이 애용했던 물건이 다수 넣어져 있다고 한다. 나뭇결이 아름다운 느티나무로 만들어 암홍색으로 붉게 물들인 다음 그 위에 생옷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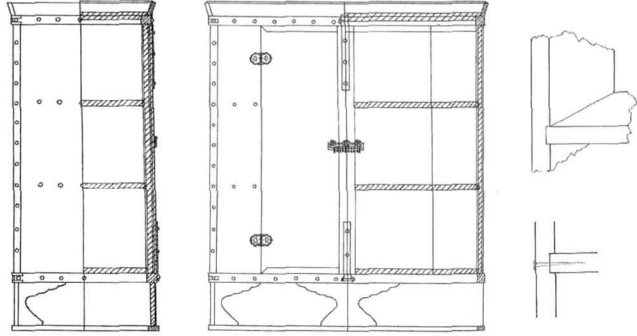
주위(四方)는 느티나무의 오리목(돌림대, 押縁)를 둘러 은을 입힌 철못(압정)으로 고정시켰다. 문은 여닫이문, 중앙의 가는 띠장(定規棧)을 상하의 금구에 넣어 금동제 자물쇠로 잠근다. 내부는 2장의 판재를 넣어 세 칸으로 구분하였다. 『国家珍宝帳』에 옛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주가 달려있으나 머리부분의 외반하듯 올라간 부분과 (궤)다리의 곡면부분 등은 옛 모습이라 하기 어렵다.

이 궤는 상당히 파손된 상태로 전해져 명치 25년~30년 즉 1892년에서 97년에 걸쳐 수리·복원되었다. 상판(天板)과 밑판(底板), 띠장, 선반, 다리(床脚)의 하부 등은 이후에 수리되었으나 정확한 수리에 의해 본래의 모습을 지금에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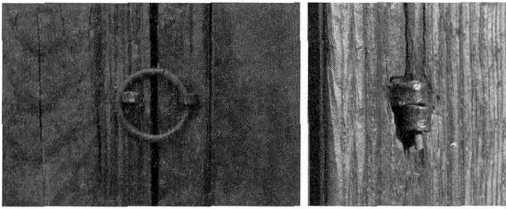
¹¹ 배희한 구술, 이상룡 편집, 앞의 책, p.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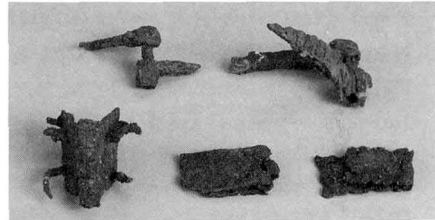
도 31 <쇼쇼인(正倉院) 적철문관목주자>, 7~8세기



도 31-1 <쇼쇼인(正倉院) 적철문 관목주자> 정면·측면, 실측도 No.42/내부선반과 측널의 결구실측도, 正倉院事務所編輯, 『正倉院の木工』(1978), p.186 삽도 8에서 발췌



도 32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 고리와 돌쩌귀 문고리 지름 3.7cm / 돌쩌귀 길이 2.4cm



도 33 <삼천사지 출토 돌쩌귀와 고리>, 13세기, 문고리 길이 8.9cm / 돌쩌귀 길이 3.2cm

인사동에서 40여 년 간 고가구를 수리해온 김경식(65세) 소목장은 “몇 백 년 전의 고가구에서 못을 사용하는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 배희한 대목장은 “박공에는 박공 거몰이(거멀의 사투리)라구 박지, 대궐에는 지네철이라구, 장판철로 새겨서 박는 거지”¹¹ 하여 한옥에서의 못 사용을 설명하였다.

8. 돌쩌귀와 고리

가구에 있어서 시대가 올라 갈수록 금속장식은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부위에 최소한의 것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장식성을 배제하였다.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에는 기능적인 금속장식만을 부착하였다. 문을 여닫는 데에는 돌쩌귀를, 문을 잠그기 위한 배목과 고리를 부착하였다(도 32). 이 돌쩌귀와 고리 배목 등은 시우쇠로 삼천사지 출토 돌쩌귀와 고리의 양식과 동일하다(도 33).

IV. 척도와 조형기법*

유물의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용 척도의 산정임으로 먼저 유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실측한 후 각부의 상세 치수를 역대 척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작 당시 사용된 척도를 추산해 내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 이 내용은 배병선 박사(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실장)의 도움을 받았다.

¹² 송척에 대한 실물자료는 1921년 중국 거록고성에서 출토된 북송시대의 309.1mm의 목제 구척(矩尺) 1개와 328.5mm의 목제 구척 1개, 평척 1개가 있으며 1964년 남경 효릉 송대묘에서 출토된 314.0mm의 목척 1개, 1965년 무한 심리포 북송대묘에서 출토된 312.0mm의 목척 1개, 1975년 강릉 봉황산 송대묘에서 출토된 308mm의 목척 1개 등 5개 정도가 있다. 송나라 주자의 『가례(家禮)』에 삼사포백척(三司布帛尺) 즉 성척(省尺)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주척과 비교하면 308.0mm 또는 309.5mm가 된다. 채원정의 『율여신서(律呂新書)』와 『옥해(玉海)』에는 태부포백척(太府布帛尺)이 기록되어 있는데 312.0mm로 비정(批正)된다. 또 심팔의 『몽계필담(夢溪筆談)』에는 송대의 자 길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316.8mm로 비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 가운데 거록고성의 328.5mm의 자를 제외한 나머지 310mm를 전후한 척도들을 평균하여 송 포백척을 311.2mm 정도로 비정하였다.

고려 영조척의 1자의 길이는 약 310mm 정도라는 설이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 일반적이다. 이는 윤장섭 박사가 『한국건축연구』(동명사 2007, p.264~272)에서 주장한 설로 고려가 중국 송과 많은 교류를 하였으므로 고려 영조척이 송척과 거의 같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거록고성에서 출토된 실물 송척 3개 가운데 1개가 309mm인데 이를 문헌에 나타난 고대 척도와 비교하면 1자가 310mm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가설을 대표적인 몇 동의 고려시대 건물에 적용한 결과 상당히 타당한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길이가 328.5mm인 다른 송척 하나는 회척(淮尺)으로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영조척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고려시대 건물들을 정밀 실측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제까지의 고려 영조척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고려 중기 건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의 평면 주칸 치수와 기둥 높이, 수장 폭, 기단석의 1단 높이 등에서 산정한 영조척은 약 330mm였고 또한 동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봉정사 극락전 단집의 간살과 수장폭 등에서 사용된 영조척이 330mm에 가까운 사실이 국립문화재연구소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1994)로 밝혀져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척도 분석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¹³ 명 영조척의 실물자료는 1956년 산둥 양산에서 발굴한 홍무 년간의 침물선에서 출토된 318.0mm 길이의 골척(骨尺) 1개, 고궁박물관 소장인 가정(嘉靖) 년간의 320.0mm 길이의 아척(牙尺) 1개, 31.74mm 길이의 동척(銅尺) 1개가 있다. 또한 주재육의 『율학신설(律學新說)』에 곡척(曲尺) 즉 영조척이 그려져 있는데 길이는 318.0mm로 측정된다. 특히 이 가운데 홍무 년간의 골척은 비록 해저에서 출토되었으나 뼈로 만든 자라는 점에서 거의 변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에 기록된 명문과 같은 시기의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할 자료라 생각된다.

¹⁴ 조선 세종 7(1425)년에 해주산 기장을 써서 황종률관을 만들고 그 9치를 황종척(黃鍾尺)으로 하였는데 그 길이는 347.2mm로 비정된다. 1430년(세종 12)에는 집현전에서 주척(周尺)을 고증하고 동시에 영조척(營造尺)과 조례기척(造禮器尺), 포백척(布帛尺)을 정하였는데 건축, 조선, 수레 제작 등에 쓰이는 영조척은 한 자의 길이는 312.4mm에 비정된다. 또한 이러한 자들을 동으로 만들어 각 균읍에 나누어 주고 이를 사용케 함으로써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그 후 세월이 지남에 따라 도량형이 혼란스러워졌는데 1750년(영조 26) 삼척의 한 창고에서 세종때의 포백척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다시 자를 만들어 널리 반포했다고 한다. 따라서 세종 이전까지의 영조척은 고려시대의 척도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1.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척도분석

1) 사용 척도의 분석

우선 세부 실측도를 작성한 후 상판, 몸체, 다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부의 길이와 폭, 높이, 두께 등의 주요 실측치수를 산정하고 이를 제작 당시에 사용 가능한 몇 가지의 척도와 비교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교 분석의 대상이 된 척도는 중국의 송척(宋尺) 두 종류¹² 와 명(明) 영조척(營造)¹³ 및 조선 세종 때의 영조척(營造尺)¹⁴ 등 네 가지이다.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가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으므로 중국의 송척과 요·금·원대의 척도, 명척 등이 척도의 기준이 될 것이나, 중국에서도 요·금·원대의 척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들을 제외하였고 오히려 시대적 비교를 위하여 조선 세종시의 영조척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전체 길이와 너비, 각부 실측 치수를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의 척도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1, 2, 3>과 같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각부 실측치수가 정수나 절반의 척수(尺數), 짝수의 촌수(寸數) 등 의미 있는 치수로 정확히 환산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척도 가운데 명 영조척 하나 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는 판문 내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1388년(고려 우왕14)에 명 영조척을 써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상판의 척도 분석

우리나라 가구에서는 불감과 불단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가구를 제외하면 상판을 이음매 없이 하나의 판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판의 너비가 클수록 수령이 오래되고 직경이 큰 나무를 써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상판에서는 길이 보다는 너비가 가장 중요한 치수의 기준이 된다.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에서도 상판은 두께가 얇은 천판의 끝 부분에 두께가 있는 두루마리 부분을 덧대어 만들었다. 명 영조척으로 환산하면 전체 길이는 4.2척, 너비는 반수적인 1.5척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통상적인 생각과 달리 두루마리 너비(d)를 고려하여 천판 길이(a)를 정수적인 4.0척으로 하지 않고 약간 짧게 만들어 천판과 두루마리 치수를 더하여 전체 치수가 되도록 계획한 점이 특이하다. 즉 상판 전체 길이(4.2척)=두루마리 너비(0.12척)+천판 길이(3.96척)+두루마리 너비(0.12척)가 된다. 이로 미루어 상판은 초기 계획시 전체 치수를 결정한 후 제작시 세부 치수를 나누어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1).

표 1 상판의 치수 분석

	실측치 (mm)	송척A (328.5mm)	송척B (311.2mm)	명 영조척 (318.0mm)	조선 세종 영조척 (312.4mm)
전체 길이	1,335	4.06	4.29	4.20	4.27
천판 길이(a)	1,259	3.83	4.05	3.96	4.03
천판 너비(b)	474	1.44	1.52	1.49	1.52
천판 두께	16	0.05	0.05	0.05	0.05
두루마리 길이(c)	478	1.46	1.54	1.50	1.53
두루마리 너비(d)	37	0.12	0.12	0.12	0.12
두루마리 두께	30	0.09	0.10	0.09	0.09
장부홈 길이	38	0.12	0.12	0.12	0.12
장부홈 너비	23	0.07	0.07	0.07	0.07

3) 몸체의 척도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 영조척으로 환산했을 때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상판이 의미 있는 치수로 정확히 계산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몸체 부분은 상판과 달리 그리 정확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전면 길이(e)는 좌우에 붙은 기둥(s)의 치수를 감안하여 설정한 치수이고 전면 높이(f)는 바닥판 두께(i)를 감안하여 정한 치수임을 알 수 있다. 즉 기둥 중심간 거리(3.2척)=기둥 한변의 반쪽 길이(0.06척)+전면 길이(3.09척)+기둥 한변의 반쪽 길이(0.06척)가 된다. 측면의 경우에도 기둥 중심간 거리(1.3척)=기둥 한변의 반쪽 길이(0.06척)+측면 길이(1.19척)+기둥 한변 반쪽 길이(0.06척)가 된다. 이는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전통 목조건축의 간살 구성과 같이 기둥 중심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높이(2.3척)=전면 높이(2.26척)+바닥판 두께(0.05척)가 된다. 이러한 치수 계획 또한 초기 계획 시에 전체 치수를 결정한 후 세부 치수를 나누어 제작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문얼굴의 너비나 높이 등은 처음부터 판문의 문짝의 치수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쇠목이나 설주, 벽선 등으로 사용된 부재 즉 수장재의 단면은 폭이 24mm, 높이가 38mm 정도로 이는 3 : 5의 비례를 갖는데 이는 일반적인 고려시대 건축의 수장재 비례와 거의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상판의 단부를 받치는 까치발 또한 길이 4치, 높이 3치로 초기 계획 때부터 고려하여 제작된 것으로 후대에 추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표 2).

표 2 몸체의 치수 분석

	실측치 (mm)	송척A (328.5mm)	송척B (311.2mm)	명 영조척 (318.0mm)	조선 세종 영조척 (312.4mm)
전면 길이(e)	982	2.99	3.16	3.09	3.14
전면 높이(f)	719	2.19	2.31	2.26	2.30
측면 길이(g)	378	1.15	1.21	1.19	1.21
측면 높이(h)	718	2.19	2.31	2.25	2.29
바닥판 두께(i)	16	0.05	0.05	0.05	0.05
문얼굴 너비(j)	568	1.73	1.83	1.79	1.82
문얼굴 높이(k)	713	2.17	2.29	2.24	2.28
문설주 너비(l)	38	0.12	0.12	0.12	0.12
문인방 높이(m)	37	0.12	0.12	0.12	0.12
문인방 두께(n)	24	0.07	0.08	0.08	0.08
판문 너비	244	0.74	0.78	0.77	0.78
판문 높이	638	1.94	2.05	2.00	2.04
판문 두께	22	0.07	0.07	0.07	0.07
문울거미 너비	25	0.08	0.08	0.08	0.08
전면 벽선 너비	38	0.12	0.12	0.12	0.12
전면 쥐벽간 너비	66	0.20	0.21	0.21	0.21
전면 중막이 높이	38	0.12	0.12	0.12	0.12
측면 벽선 너비	37	0.12	0.12	0.12	0.12
측면 쥐벽간 너비	133	0.40	0.43	0.42	0.43
측면 중막이 높이	37	0.12	0.12	0.12	0.12
까치발 길이(o)	125	0.38	0.40	0.39	0.40
까치발 높이(p)	95	0.29	0.31	0.30	0.30
까치발 두께	7	0.02	0.02	0.02	0.02

4) 다리의 척도 분석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몸체 부분의 실측 치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두 기둥의 중심 간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리 기둥의 높이(r) 또한 족대의 두께(v)를 고려하여 제작되었는데 두 치수를 합하면 의미 있는 치수로 맞아 떨어지게 된다. 즉 전체 높이(2.9척)=기둥 높이(2.81척)+족대 두께(0.09척)가 된다(표 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마치 건물의 간살이나 수장재, 공포재가 일정한 비례를 가진 것과 같이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도 초기 계획시 전체 치수를 정수척이나 반수척 등의 의미 있는 치수로 계획하고 세부에서 각 부재 치수를 세분하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다리의 치수 분석

	실측치 (mm)	송척A (328.5mm)	송척B (311.2mm)	명 영조척 (318.0mm)	조선 세종 영조척 (312.4mm)
기둥 중심간(q)	1,019	3.10	3.27	3.20	3.26
기둥 높이(r)	894	2.72	2.87	2.81	2.86
기둥 한변 너비(s)	38	0.12	0.12	0.12	0.12
중대 너비	16	0.05	0.05	0.05	0.05
중대 높이	22	0.07	0.07	0.07	0.07
족대 길이(t)	473	1.44	1.52	1.49	1.51
족대 너비(u)	41	0.12	0.13	0.13	0.13
족대 두께(v)	28	0.09	0.09	0.09	0.09

2.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조형기법

1) 안허리곡과 귀솟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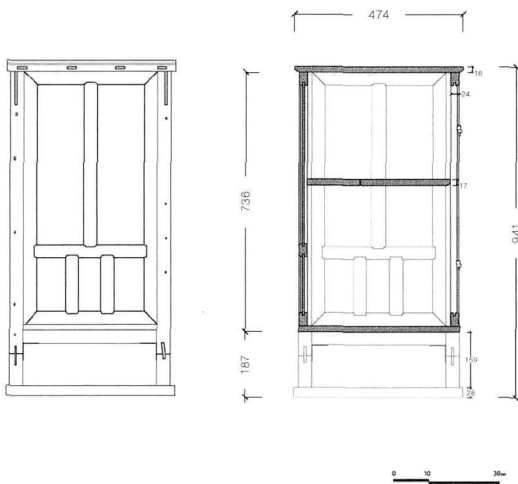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상판 치수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두루마리 길이(c)보다 천판 너비(b)가 4mm 가량 좁아서 끝부분이 일직선이 아니라 평면상 미세하게나마 안쪽으로 휨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의 평면에서 보이는 안허리곡과 유사한 현상으로 일직선으로 하였을 때 중앙이 배부르게 보이는 시각적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한 고도

의 치목 기법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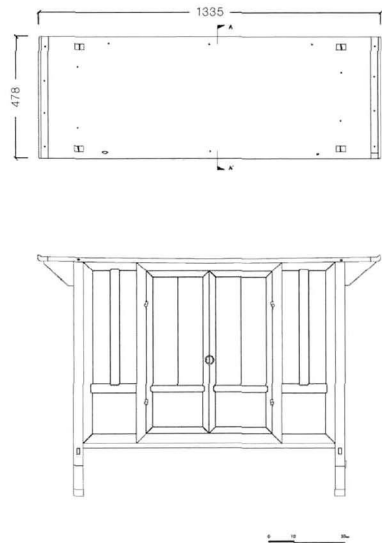
또한 실측조사시 상판의 끝부분에 수평으로 기준선을 설치하여 중앙부와 단부의 레벨 차이를 측정한 결과 8mm(2치5푼) 가량 중앙부가 낮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는 상부에 무거운 물건을 놓는 등 하중이 집적되면 단부가 휘어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결과로 생각된다. 전통 목조건축에서 보이는 귀솟음 수법에 비견할 수 있는 기법이며 구조적 보완과 동시에 착시를 교정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되 시각적으로 크게 돋보이지 않도록 고도로 계산한 결과라 생각된다.

2) 기둥의 안쏠림과 흘림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몸체 길이는 전면 상부에서 980mm, 하부에서 982mm 정도로 상부의 치수가 하부에 비해 약간 좁다. 또한 다리 부분에 사용된 기둥은 한 변의 길이가 상부 37mm, 하부 38mm 정도로 위가 미세하게 좁다(도 34, 35). 이러한 기법들은 전통 목조건축의 건물 윗부분이 아래보다 좁은 안쏠림 기법과 기둥의 민흘림 기법을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 제작시 거의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 판단된다.



도 34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 우측면도/단면도



도 35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 평면도/정면도

V. 명문의 서체 *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에는 ‘洪武二十一年戊辰四月日造鴻山地萬壽山無量寺(丁; 수결(手決)로 보임)’라는 조성기가 있고, 물목에는 ‘白器 中器十 下器九’라는 품목과 수량을 적었다(도 36). 이 명문은 ‘홍무 21년(1388) 무진 사월에 홍산 땅 만수산 무량사에서 만들(丁;

수결手決, 혹은 성姓)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물목의 내용물은 ‘백기(白磁器:흰 사발), 중기(중간 사발) 10조, 하기(아래 사발) 9조’라고 적어 ‘중기(중간 사발) 10조, 하기(아래 사발) 9조를 넣어 보관하던 가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려 조운선(漕運船: 충남태안해저유물)에 의하면 ‘중기10(中器十)’은 중기 열 꾸러미, ‘하기9(下器九)’는 하기 아홉 꾸러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명문 역시 “1388년 4월에 홍산 만수산 무량사에서 만들어졌고, 백기(白磁器



도 36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오른쪽 문짜 내측의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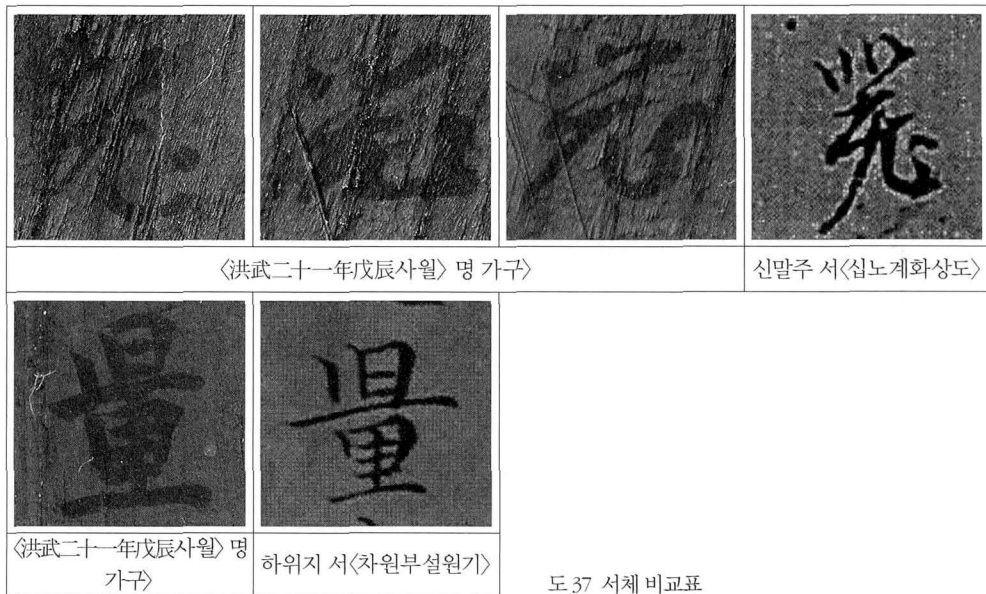
, 흰 사발) 중에서도 중기와 하기를 넣어 보관하던 가구”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결하였거나, 성을 쓴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여기에 사용된 ‘罌’의 이체자인 ‘(卍+尤/罌)’의 결구는 옛날 생활기록의 문서에 주로 사용하던 이체자이다.

위 명문 ‘洪武二十一年戊辰四月日造鴻山地萬壽山無量寺(丁)’의 서체는 사경체에 속달된 서법으로 볼 수 있다. 사경체는 금석기록과 같이 해서가 주로 사용되며 글자의 필획에 노봉과 허획을 사용하지 않고 실획만을 사용하였으며, 결구가 매우 해정하다. 다만 물목의 기록 ‘백기 중기10 하기9(白器 中器十 下器九)’는 일상의 생활기록에서 주로 사용되는 서첩류의 남조필법이다. 서첩류의 필법은 노봉과 허획을 사용한다.

* 본 V장은 손환일 박사(경기대학교 연구교수)가 집필하였음.

이체자는 주로 일상의 생활기록에서 자연적으로 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에서는 두 종류의 필법이 함께 사용되었다. ‘洪武二十一年戊辰四月日造鴻山地萬壽山無量寺’는 금석류에 주로 사용된 필법이고, ‘白器 中器十 下器九’는 서첩류에서 유행된 필법이다. 일상생활기록에서 사용된 서첩류의 필법인 ‘기(卍+尤/器)’와 ‘량(旧+一+里/量)’의 경우도 생활기록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卍+尤/器)’는 생활기록에 사용된 필법이지만, ‘량(旧+一+里/量)’의 경우 허획을 사용하지 않은 금석류의 필법이다. 하위지 서『차원부설원기』에서는 노봉을 사용한 서첩류 필법이다. 이같이 금석류의 필법에서는 허획이 사용되지 않고 실획만을 사용하며, 철저히 장봉(藏峰)을 지켰다(도 37). 서첩류의 필법에서는 허획과 노봉을 사용하여 일상의 생활기록에 주로 사용하였다. 이런 점이 서로 구별되는 점이다.



이렇게 특별히 구별되는 이체자의 사용은 서사(書寫) 당시의 서사문화임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체자에는 당시 유행하는 문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체자의 사용은 근·현대에 추가하거나 위조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기록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사법들은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가 1388년 당시에 만들어졌고 제작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의하여 기록된 묵서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鴻山地’는 ‘鴻山縣’을 기록한 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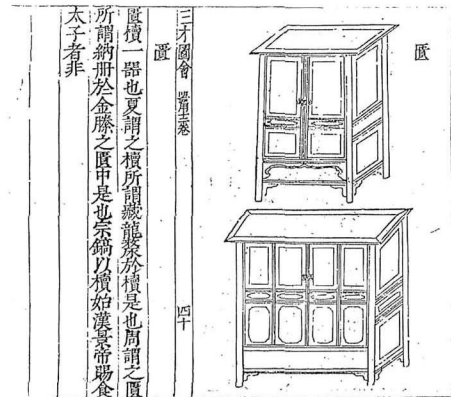
법의 표현이다. 이런 구어법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법이 아니다. 이런 이체자의 사용이나 구어법의 표현은 기록 당시의 문화를 말해 주는 것이다.

VI.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명칭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는 표면에 그릇 이름과 그릇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찬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명칭은 장이 아닌 궤나 독(櫃) 또는 주(廚)라는 명칭이었다고 본다. 그러한 이유는 장(幬)이란 한자는 조선시대에 만든 국자(國字)이기 때문이다. 궤는 한자 문화권에서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가구명칭으로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다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가구이다.

조선 초기의 문신인 어세겸(漁世謙, 1430~1500)의 기물명 이십수 효왕위(器物銘 二十首效王禕: 왕위의 문체를 본받아 지은 기물명)에 관(冠)·패옥(佩)·짚신(履)·베개(枕)·자리(席)·이불(衾)·방장(帳)·대상자[筥]·햇대(檣)·솥(鼎)·거울(鏡)·빗(櫛)·자(尺)·도장(印)·술잔(觚)·거문고(琴)·궤(櫃)·평상(榻)·병풍(屏)·검(劍)·가죽신(屨)·말(斗) 등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의 명칭을 확인할 수 없다.

독은 『고려도경』 제 33권 궤식(饋食)에 소반(盤)·독(櫃; 찬장)은 다 나무로 만들었고 흑칠(黑漆)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비록 송의 국신사의 일행인 서경(徐兢)이 기록한 것이지만 『삼재도회』의 궤(匱)에 궤는 독(櫃)과 같다 하여 동일한 의미로 쓰였으며 중국의 영향으로 제사에 사용되어 온 주독(主櫃)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므로 그러한 명칭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도 38).



도 38 明, 王圻 王思義編, 『삼재도회』- 기용(器用)12卷

15 진홍섭 역 『일본미술사』에 일본 아스카시대(飛鳥時代, 538~645)의 옥충주자는 주변의 투조장식 속에 비단벌레의 길 날개를 쪽 깔아서 그것이 투조 사이로 빛나므로 후세에 붙여진 이름으로 원래는 궁전상(宮殿像)이라 하였다.

궤가 위로 높아지며 문을 수직으로 단 것을 수궤(豎櫃)라 하였으며 조선 초기에 장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한자어를 만들어 표현하였다. 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성종 18년(1487년) 12월 22일 정해(丁亥)의 ‘내부에서 만들어 사자암(獅子庵)에 보관한 은장(銀穢)을 도난당했다’는 기사이다.

1682년에 편찬한 『역어류해(譯語類解)』에는 ‘수궤 - 장’이라 하였다. 한자어 수궤 즉 중국에서의 수궤를 우리나라에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역어류해』 외에도 1830년대에 편찬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향거기집물명변증설(鄉居器汁物名辨證說)에도 수궤 장이라 하였다. 중국의 경우 높은 궤를 북쪽지방에서는 수궤라하며 남쪽 지방에서는 주라 한다. 중국 북쪽과 주로 문화교류를 많이 한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의 북방에서처럼 수궤라 하며 해로를 통하여 중국 남방과 교역을 한 일본에서는 장을 주자(廚子)라 하여 문화의 전파경로를 짐작케 한다. 주는 일본 쇼쇼인[正倉院]에 소장된 <적칠문관목주자>나 <옥충주자(玉蟲廚子)>¹⁵에서 볼 수 있듯이 장을 뜻한다.

헌종 연간에 기록된 저자 미상의 『재물보(才物譜)』에 ‘정궤(頂櫃) 각비슈리’ 천안주장감(天眼廚粧嵌) 동역(全譯)’이라 하여 주라는 명칭이 보인다. 주에 대한 기록은 『임원경제지』 이운지(怡雲志) 권 제 6 도서장방(圖書藏訪)에 책장을 서주(書廚)라 하였고 같은 책 섬용지(瞻用志) 권 2 취찬지구(炊爨之具)에 뒤주(斗廚), 찬주(饌廚)¹⁶가 있다. 이중 찬주가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와 내용이 유사하여 당시의 명칭은 궤나 장이라기보다는 찬주였다고 추정된다.

VII. 맺는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는 현존하는 고려 건축물인 부석사 무량수전의 뒷문과 창호 및 안동 봉정사 극락전의 창호에서 볼 수 있는 문얼굴을 하였다. 이러한 문얼굴 양식을 한 가구는 조선 초기까지 그 영향이 이어져 세조 때 손소(1433~1484)가 이

¹⁶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를 인용하여 ‘문목으로 한다. 길이는 일장으로 하며 너비는 4~5자에 달한다. 2~3층으로 하고 앞면에 양선문을 설치하여 빗장장식을 하고 일체의 음식물을 넣어 둔다. ... 송의 입궤(立饋)는 모두 우리나라의 찬주와 그리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원문 瞻用志券二 炊爨之具 饌櫥：文木爲之 長可一丈 廣四五尺 或三格或二格 每格前面當中設兩扇門外施扁鑄 以貯一切食物 案 沈括補筆談云 大夫七十 以有閣 天子之閣 左達五右達五 閣者板格以度 膳羞者正是今之立饋 今吳人謂立饋爲廚者原起於此 以其貯食物故謂之廚 意周之閣末之立饋皆與吾東之饌櫥不相遠也(金華耕讀記)

시에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하사받은 것이라고 전해지는 리움박물관 소장의 책장의 전면 좌우 쥐벽간과 측널의 알갱이들에서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는 부출의 외면 네 모서리 및 개구부의 문얼굴 바깥 모서리를 제외한 모든 기둥과 쇠목 등은 쌍사면에 쌍사모를 하였다. 쌍사면과 쌍사모기둥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 내부 단집에서 볼 수 있으며 삼천사지 출토의 가구 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고려시대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 천판 아래 양귀의 풍혈(까치발)은 직선형태의 단순한 삼각형 형태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의 단집 창방 뿔목과 유사하다.

천판 두루마리는 통목으로 조선시대의 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내다지 장부짜임을 하여 현존하는 가구로서는 유일하다. 조선시대의 천판 결구는 대부분 숨은 사개짜임나 반턱짜임으로 이루어 졌다. 임진왜란시 의병장인 최문병(?~1599)의 경상과 서애 유성룡 경상의 천판, 국립민속박물관의 17세기 책장(유물번호39784)은 숨은 사개짜임이며 강희 21(1682)년 명 지림사 경상 천판은 반턱짜임이다. 천판 두루마리는 외반되지 않고 거의 직선을 이루었다. 조선시대의 천판 두루마리는 시대가 흐를수록 외반 폭이 넓은 편이다. 시우쇠못과 대나무못을 함께 사용하였다. 기둥과 기둥의 교차부위에 시우쇠(熟鐵)못을 사용하였고 기둥과 널의 접합부위에는 대나무못(竹釘)을 사용하였다. 시우쇠못의 사용은 쇼쇼인(正倉院)의 〈적철문관목주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삼천사지의 가구 편 중 연귀짜임에서도 볼 수 있다. 돌쩌귀와 배목 고리의 양식은 삼천사지 출토 돌쩌귀와 배목, 고리의 양식과 동일한 고식이다.

세밀한 실측과 분석으로 명 홍무 년간의 침물선에서 출토된 31.8cm의 영조척이 정수나 반수척, 짝수의 촛수로 정확히 환산되었다. 또 초기 계획시에 전체치수를 결정한 후 세부치수를 배분하였으며, 안허리곡과 귀솟음 기둥의 안쏠림과 흘림 등 고려 건축의 요소가 보인다.

명문의 서체는 금석류의 필법이지만 ‘(𠄎+尢/器)’는 첩류의 필법이다. 글자의 서체에 있어서 ‘器’를 ‘(𠄎+尢/器)’로, ‘量’을 ‘日+一+里’ 등으로 서사하는 예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지만 근·현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이체자들이다. 이들 이체자를 통하여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기록은 근·현대에 서사되지 않고 1388년 당시에 서사된 명문임을 추찰할 수 있다.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당시 명칭은 『임원경제지』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찬주였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장(槩)이라는 한자어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국자(國字)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는 고려 건축양식과 가구에서 볼 수 있는 이중 문얼굴과 좌우비대칭의 널 사용, 쌍사면과 쌍사모 기둥, 삼각형으로 직절한 풍혈, 시우쇠못의 사용, 명 홍무 년간의 영조척 사용 등 고려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명문의 기록과

같이 조선시대의 가구에 선행하는 고려시대의 양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가구는 편년이나 가구양식 연구에 중요한 위치 매김을 할 고려 목공예의 진수(珍秀)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제어(key words)** _고려장(Cupboard of the Goryeo period), 이중문얼굴(Face plate with double framework), 쌍사면과 모기둥(Pillar face and edge with symmetrical moulding), 풍혈(Corner spandrel), 천판두루마리(Everted flange), 내다지장부(Mortise and tenon with penetrate joint), 삼천사지 가구편(Furniture components excavated in the Samcheonsa temple site)

■ 투고일 2011년 8월 23일 | 심사개시일 2011년 9월 24일 | 심사완료일 2011년 10월 31일 ■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일본 정창원 유물의 보존』, 예맥, 2010, 7
- 국립문화재연구소,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1994
- 국립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古建築 22호』, 2000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 수증발굴조사 보고서』, 2010
-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1995, 6.
- 金富軾, 『三國史記』
- 북한국역 『高麗史』, 신서원, 1991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鳳停寺 極樂殿』, 1992, 12
- 文化財廳, 『부석사무량수전』 실측조사보고서(본문, 도면), 2002, 11
- 배병선, 『목조건축개론』, 『문화재수리기술강좌 교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
- 배희한 구술, 이상룡 편집,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뿌리 깊은 나무, 1981, 5
- 司譯院, 『譯語類解』, 숙종 8년(1682) 亞細亞文化社 影印, 1974, 7
- 서울역사박물관, 『삼천사지』, (주)씨티파트너, 2008, 11
- 徐有桀, 『林園經濟志』, 서울대학교고고전간학회, 1966
- 윤장섭, 『한국건축연구』, 동명사, 2007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下』, 古典刊行會
- 저자미상, 『才物譜』, 현종 연간
- 『朝鮮王朝實錄』, CD
- 崔在錫,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1996, 1
- 郭黛姮, 『東來第一山(保國寺)』, 文物出版社, 中國 北京, 2003
- 당인커 저, 조일신 역, 『고대발명』, 대가, 2008
- 徐兢, 국역 『高麗圖經』, 재단법인민족문화추진회, 1977, 12
- 李誠, 『營造法式』(影印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中國 北京, 2006
- 正倉院事務所編輯, 『正倉院の木工』, 1978
- 河南省計量局, 『中國古代度量衡論文集』, 中州古籍出版社, 中國 鄭州, 1990

국문초록

십 여 년 전 한 학부모의 제보로 내면에 <홍무21년무진사월일조홍산지만수산무량사(洪武二十一年 戊辰 四月 日 造 鴻山地萬壽山無量寺)>라는 조성기 명문이 있는 가구를 보았다. 홍무 21년은 고려시대인 1388년을 가르키며 가구의 양식이 고려 건축의 양식과 유사하여 한눈에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조선 전기 이전의 가구에 대한 학계의 공인된 유물이나 자료가 없어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는 조선시대의 가구에 선행하는 양식으로 가구의 편년이나 가구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지만, 아직 까지 학계에 공식 보고되지는 못하였고 또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나무를 다루는 장인을 통틀어 목수라고 부르는데 목수에는 대목(大木)과 소목(小木)이 있다. 대목과 소목의 분류는 중국 송나라의 이계(李誠:明仲)가 1103년에 편찬한 『영조법식(營造法式)』에서 처음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 소목장이라는 명칭이 『고려사(高麗史)』에 기록되어져 『영조법식(營造法式)』의 분류에 따라 대목장과 소목장의 분류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대목과 소목은 건물을 지을때 함께 작업을 하므로 그 양식과 기법상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이에 고려시대의 건축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 및 그 내부에 설치된 단집, 부석사 무량수전의 후문과 우리나라의 장이라고 알려진 일본 쇼쇼인(正倉院)소장의 <적칠문관목주자(赤漆文觀木廚子)>,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의 삼천사지(三川寺址) 출토 금동 투각 목가구부재, 철제돌쩌귀, 경첩, 고리, 시우쇠못 등과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장과의 양식을 비교 하였다. 그 결과 고려의 건축양식과 가구에서 볼 수 있는 이중 문얼굴과 좌우비대칭의 널 사용, 쌍사면과 쌍사모 기둥, 삼각형으로 직절한 풍혈, 철제돌쩌귀, 경첩, 고리, 시우쇠못의 사용 등 고려의 양식적 특징과 동일한 양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이 가구의 제작연대를 알기 위해 실측을 하여 각 부분을 역대척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1956년 중국 산둥 양산에서 발굴한 명 홍무 년간의 침물선에서 출토된 31.8cm의 영조척(甬尺)이 정수나 절반의 척수 혹은 짝수의 촌수로 정확히 환산되어 이 가구가 홍무 년간에 제작된 명의 영조척을 사용해서 제작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명문의 서체에 있어서 ‘罽’를 ‘(巾+尢+罽)’로, ‘量’을 ‘旧+一+里’ 등으로 서사하는 예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지만 근·현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이체자들이다. 이들 이체자를 통하여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의 기록은 근현대에 서사되지 않고 홍무이십일년(1388) 당시에 서사된 명문임을 추찰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홍무이십일년무진사월> 명 가구는 고려 건축양식과 가구에서 볼 수 있는 양

식을 보이고 있으며 명나라 홍무 년간의 영조척 사용, 명문의 서체가 근·현대에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명문의 내용과 같이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Abstract

Dating the Chest Bearing the Inscription ‘the Fourth Month of the *Wuchen* Year (the 21st Year of the Hongwu Reign)’

Kim Sam Dae Ja *

About ten years ago, I was informed by a student’ parents of the existence of a piece of old furniture inside which there is a dated inscription that reads ‘the Fourth Month of the *Wuchen* Year (the 21st Year of the Hongwu Reign).’ The term Hongwu is an era name used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the 21st year of the Hongwu reign corresponds to 1388.

It was quite obvious to the naked eye that this furniture, in a style characteristic of Goryeo, was made during the Goryeo period.

There is no surviving furnishing item confirmed to date from prior to the early Joseon period. Therefore, this chest with the dated inscription “the fourth month of the *wuchen* year (the 21st year of the Hongwu reign)” is considered invaluable for the window it may offer onto the style of pre-Joseon Korean furniture. However, its existenc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in academia through official channels, and its authenticity is still in dispute.

Artisans working with wood, or carpenters, are of two type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distinction used in Korea: Daemok and Somok (cabinetmakers). The categories of Daemok and Somok first appeared in *Yingsao fashih* (營造法式) compiled in 1103 by Li Jie (李诫), a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ember of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Chinese man of the Song Dynasty.

In Korea, the term “Somokjang” is encountered in *Goryeosa* (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indicating that Koreans also distinguished carpentry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used in Yingtsao fashih (營造法式) Daemok and Somok worked together for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the techniques used by the two types of carpenters were closely related and mutually influenced each other.

In this paper, I compare the chest with the dated inscription “the fourth month of the *wuchen* year(the 21st year of the Hongwu reign)” with woodworks in two Goryeo-period buildings, including the Geungnakjeon Hall of Bongjeongsa Temple, a Goryeo temple located in Andong, and the canopy set up inside this hall; the rear door of the Muryangsujeon Hall of Buseoksa Temple; the red-painted wooden Buddha niche in Japan’s Shoshoin, believed to have been made in Korea; as well as gilt-bronze openwork wood furniture accessories, iron hinges, loops and wrought iron-nails, discovered at the former site of Samcheonsa Temple (Bukhansan Mountain, Goyang, Gyeonggi-do). The results of comparison confirm that this piece of furniture was made indeed in an identical style to Goryeo wood buildings and wood structural items, using the same double framework, asymmetric panels and sides and edges of columns with symmetric moldings, decorative corner spandrels, iron hinges, loops and wrought iron-nails; all typical details of wooden constructions from this period.

Meanwhile, to determine its exact date of creation, the chest was measured, and the measurements of each section were compared with historical measuring tool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asuring tool used for this chest was the Yeongjo yardstick (營造尺), 31.8cm in length, an exemplar of which was found in a sunken ship discovered in 1956, off Liangshan in Shandong, China, believed to date from the Hongwu era; all measurements could be exactly converted into a whole unit of this yardstick or half of a unit or multiples of a unit. As for some of the characters used in the inscription, including ‘器+尤’ for ‘gi(器)’ and ‘日+一+里’ for ‘lyang(量)’, these are variants used between the Goryeo period and early Joseon, which were no longer used in subsequent eras; hence, confirming that the inscription also date from when this chest was made in 1388.

Based on the evidence in terms of style, construction techniques, and structural pieces, as well as the use of the Yeongjo yardstick (營造尺) and the calligraphic style of the

inscription,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furniture with the dated inscription “the fourth month of the *wuchen* year (the 21st year of the Hongwu reign)” was made in Goryeo.